

직장여성의 식습관과 위증상* Food Habit & Gastric Symptom of Career Women

정 희 심**

I. 머리말

식생활은 인간이 영위하는 여러 생활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요소로서 직접적으로는 인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신체 조직을 구성해 주며 간접적으로는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바른 식습관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정상적인 신체 발달 및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되고 나쁜 식습관의 장기화는 영양 실조와 질병을 유발하여 인간 생활의 불행과 빈곤을 초래한다고 했다(박일화등 1976 ; 김연선, 1990). 특히 식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위암은 남녀 모두에서 1980년 이래 발생 빈도나 암 사망 원인에서 계속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통계청, 1994)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진복, 1995).

최근 산업 발전에 따른 1980-1991년 12년 동안의 경제 활동 인구 증가에서 남자가 25.9%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41.5% 증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노동부, 1992). 한편 식생활은 경제 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다양한 직업과 근무 형태에 따라 변화되어 조화를 상실해 가고 있다(김현오등, 1995). 또한 올바른 식습관은 가정 주부인 어머니, 직업, 경제 수준, 대중 매체 및 영양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김숙희, 1978 ; 박일화등, 1979 ; Dunn, 1983 ; Williams, 1984 ; 송유숙, 1986) 있으나 국내의 경

우, 직장 여성의 식습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증상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직장 여성이 식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식사 제공의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 상

서울, 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 6개월 이상의 직장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종은 간호사, 일반사무직, 교사, 은행원, 교환원, 공무원이었다. 배포한 설문지 총 600부 중 525부가 회수되어 87.5%의 회수율을 보였고 기입이 부실한 15부를 제외한 510부의 설문지를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방 법

예비조사에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몇개 문항을 수정한 후 1996년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는 자기 기입식으로, 해당 기관장 또는 직원에게 직접 배부하여 일정기간 후

*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의정부 성모병원 9층 동병동 책임간호사

회수 하였다.

설문지는 총 26개 문항이며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한 6문항과 대상자의 식습관을 알아 보기 위한 10문항 (이기열 등, 1980), 위증상을 알아 보기 위한 10문항 (Heading, 1991)으로 작성하였다.

식습관 조사표에 의한 평균 점수 산출은 일주일중 섭취 일수가 0-2일인 경우에 0점, 3-5일 1점, 6-7일에 2점을 주어 총 20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고, 위증상 내용의 평균 점수 산출은 최근 3개월 동안 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의 빈도를 기록하도록 하여 7일 이상 경험한 경우를 3점, 3-6일 경험한 경우 2점, 1-2일의 경우 1점, 없는 경우 0점으로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위증상 호소가 많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3. 대상자의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AS로 전산 처리 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에 대하여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식습관 과 위증상 점수의 유의성은 ANOVA 와 t-test 를 하였으며 집단간의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 를 하였다.

Ⅲ.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5세 이하가 33.6% 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51.9%, 기혼이 48.1% 였다. 교육 정도는 전문대졸 이상이 78.4% 였고, 주거 형태는 가족 과 함께 기거하는 경우가 75.6% 였다. 대상자의 직종은 간호사가 38.3%, 사무직 26.2%, 교사 18.3%, 은행, 전 화국 및 방송국 근무자가 17.2% 였고, 근무 형태는 비교 대 근무 63.5%, 교대 근무 36.5% 였다(표 1).

2. 대상자의 식습관 조사표에 의한 점수

식습관 조사표에 의한 식습관 점수는 표 2와 같으며 대상자의 식습관 점수 평균평점은 0.96±0.37이었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야채류를 드십니까?"와 "과 일이나 과일 주스를 드십니까?"로 평균이 1.25±0.6, 1.22±0.7 이었으며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식사시 식품 배합을 생각하고 드십니까?"(0.49±0.65)와 아침

Table 1. General &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51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 (yrs)	≤ 25	170	33.6
	26 - 30	129	25.4
	31 - 35	121	24.0
	36 ≤	86	17.0
Marital Status	Unmarried	263	51.9
	Married	244	48.1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109	21.6
	Junior college	210	41.7
	Above college	185	36.7
Dwelling	With Family	384	75.6
	Without Family	124	24.4
Occupation	Teacher	92	18.3
	Nurse	193	38.3
	Clerical Worker	132	26.2
	Bank, Telephone & Broadcasting	87	17.2
Duty Form	Non shift	319	63.5
	Shift	183	36.5

Note : Because of no response, total number of subjects by characteristic are not same.

식사의 규칙성 (0.7±0.9) 이었다.

점수별 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식사시 식품 배합을 생각하고 드십니까?" 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십니까? 에서 0점에 각각 59.2%, 56.1% 응답하였고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드십니까?" 와 "야 채류를 드십니까?"에서는 2점에 각각 37.1%, 36.3%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직업 특성에 따른 식습관 점수는 표 3 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식습관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사후 검증 결과 25세이하 군이 8.9±3.7 로 31세이상-35세군의 10.5±3.9 와 36세이상군의 10.9±3.3 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26세이상-30세군이 31세이상-35세군과 36세이상군보다 낮았다. 또한 미혼군의 식습관 점수가 8.7±3.5 로 기혼군의 10.8±3.6 보다 더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01),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의 식습관 점수가 8.0±3.4 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의 10.2±3.6 보다 낮았다(P=0.0001). 직종에 따라서도 식습관 점수에 차이

가 있었는데(P=0.0001) 간호사가 8.4±3.5 로 교사 10.9 ±3.3 와 사무직 10.7±3.6, 은행, 전화국 및 방송국 근무자 9.9±3.6 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대 근무자의 식습관 점수가 8.5±3.6으로 비교대 근무자의 10.3±3.5 보다 낮았다(P=0.0000).

3. 대상자의 위증상

대상자의 위증상 점수는 표 4와 같으며 위증상 호소의 평균평점은 0.81±0.66 이었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헛배가 부르다” 1.90±0.99 와 “식후 포만감으로 불편하다” 1.12±1.1 이었으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1.11±1.05, “식욕상실” 1.02±0.90, “트림” 1.01±1.04 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구토” (0.24±0.62) 였다. 점수별 응답 빈도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와 “식후 포만감으로 불편하다” 에서 3점에 각각 14.9%와 14.7%가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위증상 점수는 표 5 와 같다. 즉 연령에 따라 위증상 점수에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 (P=0.0001) 사후검증 결과 25세 이하군이 10.5±6.7 로 31-35세군 5.4±5.2 나 36세 이상군 5.8±6.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26-30세군이 9.2±6.7 로 31세-35세군이나 36세 이상군과 유의한 차를 보였다. 미혼군의 위증상 점수는 10.2±6.8 로 기혼군 5.9±5.6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주거 형태별로는 가족과 함께 기거하지 않는 경우가 10.6±7.3 으로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경우의 7.4±6.2 보다 높았다. 또한 직종별

위증상 점수에도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 (P=0.0005) 사후 검증 결과 간호사가 9.5±7.3 으로 교사 6.2±5.7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대 근무군이 9.9±7.1 로 비교대 근무군 7.1±6.0 보다 위증상 점수가 높았다.

4. 식습관과 위증상간의 관계

표 6 은 본 연구 대상자의 식습관과 위증상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대상자의 위증상 점수는 식습관 점수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위증상 점수가 낮았다(P=0.0001)

IV. 고 찰

식습관은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활 양식으로 개인, 문화적, 사회,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 얻어지는 결과이며, 어느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생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Williams, 1981 ; 細谷 등, 1949). 따라서 어떤 집단의 식습관을 통해 그 집단의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반대로 건강 문제 호소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일도 가능하다 하겠다(임현숙, 1981).

본 연구에서 직장 여성의 식습관 점수가 20점 만점에 평균 9.7 로 여대생 9.2-8.2점(김화영과 정순자, 1985 ; 이영란, 1991)보다는 높았고, 직장 남성 13점(신영자, 1990)과 주부 10.8-10.6 점(송요숙, 1986 ; 강남이와

Table 4. Score of gastric symptom

Statements	days / for 3 Month				Mean ± SD
	0	1	2	3	
	No (%)	No (%)	No (%)	No (%)	
Frequency of gastric symptom					
1) Anorexia	167(32.7)	198(38.8)	112(22.0)	33(6.5)	1.02 ± 0.90
2) Early satiety	181(35.5)	167(32.7)	86(16.9)	76(14.9)	1.11 ± 1.05
3) Belching	210(41.2)	147(28.8)	91(17.8)	62(12.2)	1.01 ± 1.04
4) Nausea	353(69.2)	81(15.9)	51(10.0)	25(4.9)	0.51 ± 0.86
5) Acid regurgitation	360(70.6)	72(14.1)	55(10.8)	23(4.5)	0.49 ± 0.86
6) Heart burn	214(42.0)	133(26.1)	118(23.1)	45(8.8)	0.99 ± 1.00
7) Bloating	236(46.4)	133(26.1)	96(18.9)	44(8.6)	1.90 ± 0.99
8) Post prandial fullness	193(37.8)	138(26.9)	105(20.6)	75(14.7)	1.12 ± 1.08
9) Vomiting	430(84.3)	22(4.3)	48(9.4)	10(2.0)	0.24 ± 0.62
10) Abdominal pain or discomfort	294(57.6)	112(22.0)	70(13.7)	34(6.7)	0.69 ± 0.94
Total					0.81 ± 0.66

Table 5. Comparison of gastric symptom by general &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n=510)

Character	Category	N	Mean ± SD	t or F	P
Age (yrs)	≤ 25	172	10.5 ± 6.7	21.09	0.0001
	26 - 30	129	9.2 ± 6.7		
	31 - 35	122	5.4 ± 5.2		
	36 ≤	86	5.8 ± 6.1		
Marital status	Unmarried	263	10.2 ± 6.8	7.59	0.0000
	Married	244	5.9 ± 5.6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109	8.6 ± 6.4	3.34	0.0363
	Junior college	211	8.8 ± 6.9		
	Above college	184	7.2 ± 6.4		
Dwelling	With family	384	7.4 ± 6.2	4.69	0.0000
	With out family	123	10.6 ± 7.3		
Occupation	Teacher	92	6.2 ± 5.7	6.02	0.0005
	Nurse	195	9.5 ± 7.3		
	clerical worker	132	7.5 ± 6.4		
	Bank & Telephone & Broadcasting	87	8.1 ± 5.8		
Duty form	Non shift	319	7.1 ± 6.0	4.59	0.0001
	Shift	183	9.9 ± 7.1		

□ p<.05 by Scheffe, test.

Table 6. The correlation matrix between score of food habit and gastric symptom

	Gastric Symptom
Food Habit	-0.22*
Gastric Symptom	

*p<.000

송요숙, 1991) 보다는 낮았다. 즉 직업 여성의 식습관이 대학생보다는 높으나 직장 남성과 일반 주부 보다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습관 점수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 연령에 따라 식습관 점수가 차이가 있어 25세 이하군이 8.9 로 31-35세군 10.5 나 36세 이상군 10.9 보다 낮았으며, 26-30세군이 9.1 로 31-35세군과 36세 이상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영자(1990)의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군의 식습관 점수가 9.1 로 대졸군의 10.2 보다 낮았는데 이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았다는 결과 (이일화와 이미애, 1988 : 김혜영 등, 1995) 와 비슷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형태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 식습관 점수가

10.2 로 가족과 함께 기거 하지 않는군 8.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경우가 식습관이 좋다는 많은 보고들(김연선, 1990 : 신영자 1990 ; 오은주, 1987 ; 임현숙, 1981 ; 김현정, 1980) 과 일치하였다.

직업별 식습관 점수는 간호사가 8.4 로 교사 10.9, 사무직 10.7 이나 은행, 교환 및 방송국 근무자 9.9 보다 더 낮았다. 그러나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한 결과에서 전문직, 관리직 판매직이 사무직보다 식습관이 좋게 나타난 신영자(1990)의 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또한 비교대 근무자의 식습관 점수가 10.3 로 교대 근무자 8.5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 즉 간호사, 의사, 기술공원의 식생활 조사 결과 모두 미비했다는 김현정(1980)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위증상에 대한 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8.1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위증상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본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낮은 점수로 해석할 수 있겠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위증상 점수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5세 이하가 10.5 로 31이상-35세군의 5.4나

36세 이상군 5.8 보다 높았고, 26-30세군은 9.2 로 31세-35세군과 36세 이상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로써 30세 이전 직업 여성이 30세이후 보다 식습관이 좋지 않고 위증상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대 직장 여성의 식생활 특징이 음식 선택시 기호에 편중되어 있고 외식이나 군것질을 많이 하며 외모에 관심이 많아 체중조절등 (국민영양, 1992)에 신경을 쓰고 있어 위증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상태에 따른 위증상 점수 비교에서 미혼군이 10.2로 기혼군 5.9 보다 높았고,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8.8 이 대졸 7.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과 함께 기거하지 않는 경우에 10.6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경우 7.4 보다 높았다. 이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식생활이 다채롭고 건강에 유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직종별 위증상 점수에서 간호사가 9.5로 교사 6.2 보다 높아 위증상이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가 위증상이 많고 식습관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므로 이들의 식습관을 향상시키고 위증상에 대한 주의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교대 근무자 9.9 가 비교대 근무자 7.1 보다 점수가 높아 위증상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교대 근무자의 불규칙적인 직장 생활이 식습관을 불규칙하게 하며 위증상도 갖게 되는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 빈번한 증상이 소화기 계통이었다고 보고한 이원철과 이강숙(198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위증상과 식습관 점수의 상관관계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여고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조사에서 식습관 점수가 낮은 경우 위장 질환이 많았다는 윤순자(1985)의 결과나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식습관 점수가 낮을수록 소화기 증세가 많았다는 장유경등(1988)의 결과와 일치했으며 노인의 경우 식습관이 나쁠수록 소화기계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는 조영숙과 임현숙 (1986)의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체육 대학생의 식습관 점수가 좋을수록 소화기 증세 호소는 낮아졌고(이영란, 1991),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한 식습관이 낮은 경우 생활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고 소화기 척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는 결과(김연선, 1990) 와 일치하였다.

V. 맺 음 말

직장 여성의 식습관과 위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 6개월 이상의 직장 여성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여성의 평균 식습관 점수는 20점 만점에 9.6 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2. 직장 여성의 식습관 점수는 연령이 적은 경우, 미혼인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와 가족과 함께 기거하지 않는 경우에 낮아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간호사가 다른 직종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교대 근무자가 비교대 근무자보다 낮았다.
3. 직장 여성의 위증상 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8.1 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4. 직장 여성의 위증상 점수는 연령이 적은 경우, 미혼인 경우, 전문 대졸인 경우와 가족이 함께 기거하지 않는 경우에 높아 위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직업별로는 간호사가 교사 보다 위증상의 점수가 높았으며 교대 근무자가 비교대 근무자보다 점수가 높아 위증상이 더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식습관과 위증상은 역 상관관계로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위증상 점수가 낮았다($r = -0.22$).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식습관이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 및 직장 생활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써 이들 특성 별 차이를 고려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바람직한 식사 제공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남이, 송요숙. 여대생과 그들 어머니의 영양 지식 및 식습관이 영양 섭취 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식품영양학회지 1991 ; 4(1) : 35-44.
- 강남이, 정은자, 송요숙. 식품영양학 전공 여대생과 비 전공 여대생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의 차이. 한국 영양학회지 1992 ; 15(3) : 116-122.
- 김숙희. 영양실태, 서울대 사회과학 대학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1978 ; 1121-1185.
- 김연선. 서울시내 남교사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김진복. 한국인 5대 암질환의 진로 현황과 생존율. 대한 의학협회지 1995 ; 38(2).
- 김화영과 정순자. 주부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85 ; 17(3).

- 김현오, 이영순, 황금희, 윤옥현, 박춘란, 김은경등. 생활 관리학 서울 : 광문각 1995.
- 김현정.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의 식생활 태도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김혜영, 하태열, 김영진. 전국 중학생 어머니의 영양 태도와 식습관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995 ; 28(2) : 152-161.
- 노동부. 여성과 취업. 1992.
- 박일화, 김숙희, 모수미.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이화여대출판부, 1976 : 3
- 박일화, 김숙희, 모수미.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이화여대출판부 제2판, 1995.
- 송요숙. 식품 영양학 교양과목이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식품 영양 학회지 1986 ; 19(6).
- 신영자. 도시지역 직장 남성의 식습관 및 외식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오은주. 일부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대학원 1987.
- 윤순자. 여고생의 식습관과 학습의욕 및 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 이기열, 이양자, 김숙영, 박계숙. 대학생의 영양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980 ; 13(2) : 73-81.
- 이영란. 체육대학생의 식습관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1991.
- 이원철과 이강숙. 교대근무 여성근로자의 건강문제. 산업보건 1987 ; 10 : 40-44.
- 이일화와 이미애. 서울 시내 여자 중학생들의 성장 발육과 영양 섭취 실태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대한 가정학회지 1988 ; 21(1) : 37.
- 임현숙. 일부지역 여대생의 식생활 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1980 ; 18(1) : 47-52.
- 임현숙. 식습관과 건강상태와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81 ; 14(1).
- 장유경, 오은주, 선영실.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88 ; 26(3) : 43.
- 조영숙과 임현숙. 일부지역 노인의 영양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86 ; 19(6) 382-391.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1994.
- Dunn, M.D : Fundamentals of nutrition, 443-451, CBI. Co, Boston, 1983.
- Heading R. C. Definition of Dyspepsia. Scand J Gastroenterol 1991 ; 26(suppl 182). 1-6.
- Williams, E.R & Calierdo, M.A Nutrilior, Mcgraw-hill. Cc. New York, 1984 : 3-31.
- Williams, E.R Nutrilior & diet therapy, mosby, 1981 : 265-280.
- 細谷, 鈴木등. 공중영양학. 제일출판사. 동결. 106 昭和 1949.

— Abstract —

Food Habits and Gastric Symptoms of Career Women

*Chung, Hee Shim**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habit and gastric symptom. Five hundreds ten women working more than 6 months were chosen for samples among the residents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s. This survey was done by questionnaire from the 5th September to the 5th October 1996.

The results was followed :

1. The average score of the food habit in the career women was 9.6 among the total score 20
2. The food habit of the career women appeared worse to whom were younger, single, and having loss educational backgrounded and living apart

from family, When the average score of food habit was compared between groups, nurses group was lower than the other group, and shift workers.

3. The average score of gastric symptom was 8.1 among the total score 30.
4. The average gastric symptom score of the career women was resulted in less high among the younger, single, technical college graduated and living separately from the family.

In the group comparison, the nurse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teachers and shift worker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nonshift worker.

5.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ood habit and gastric symptom.

From the research point of view, the food habit of career women resul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occupations and invidual characteristics. Therefore, education and guidance for appropriate diet and food habit will be considered as necessary for health of the working women.

*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Occupational Health,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